정책연구 보고서 제 2022 – 06호

SGI Sustainable Growth Initiative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지속성장 Report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김진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sunny@cau.ac.kr)
황인호 국민대학교 교수(hwanginho@kookmin.ac.kr)

2010년 제1차 벤처 붐 이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제2차 벤처 붐을 맞이하면서 양적·질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전 국민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창업 기업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하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및 벤처캐피털(VC)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되었다. 정부도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국내 창업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 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협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업종별 창업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발 고기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동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Sustainable Growth Initiative)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설립한 민간 종합 경제연구기관이다.

제 2022 - 06호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김진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sunny@cau.ac.kr)
황인호 국민대학교 교수(hwanginho@kookmin.ac.kr)

Ⅰ.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이슈
Ⅱ. 국내 창업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Ⅲ. 맺음말

▸ 본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ustainable Growth Initiative)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이슈

1)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 우리나라는 범부처 차원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20년 제2의 벤처 붐이 조성되어 혁신 기반의 창업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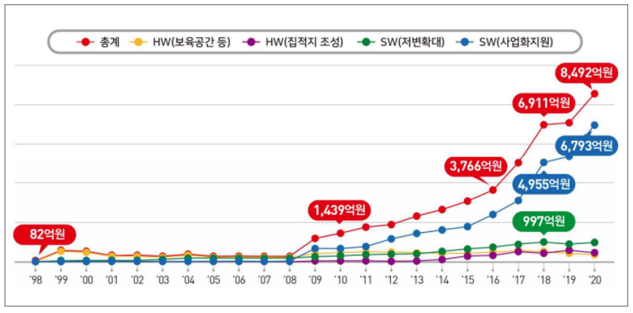
○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형성된 제1의 벤처 붐은 혁신 정보기술(IT)의 발달에 힘입어 국내외 기술창업과 벤처투자가 급증했던 시기를 의미하며, 소위 닷컴기업 중심으로 IT 관련 창업이 활성화됨.

○ 2020년을 전후로 시작된 제2의 벤처붐은 그동안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의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필두로, 정부의 과감한 제도 혁신 및 전폭적인 지원과 숙련된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의 증가, 대기업의 협력 등이 맞물려 바이오, 의료, 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 혁신적 IT 기술을 접목한 창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의미

– 정부는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 예산*을 다각화면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서 R&D, 보육, 교육 및 멘토링 등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서 증가시켜 옴.

* 창업 지원 예산은 2020년 8,492억으로 2010년 1,439억 원 대비 약 6배 증가(약 7천억 원 증가)

〈그림 1〉 연도별 창업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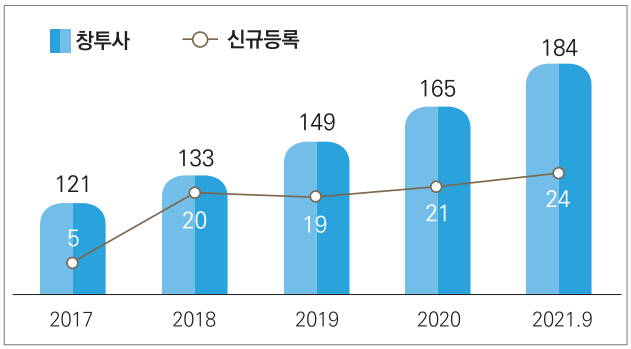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04) 한국 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 초기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2017년 상반기 22개에서 2021년 11월 기준 357개로 약 16배 증가

– 또한, 국내 창업투자 회사는 2017년 121개에서 2021년 9월 현재 184개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매년 약 20개 이상의 창업투자회사가 신규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림 2〉 '98-'20년 창업생태계 주요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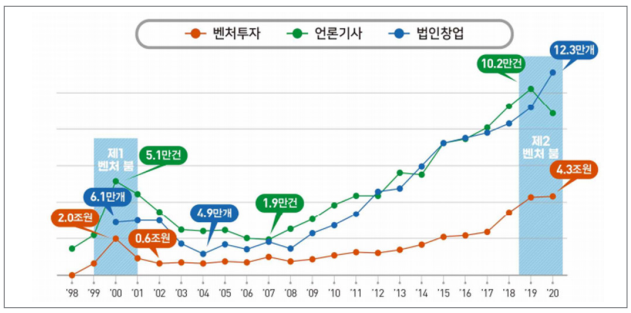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1),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 이에 따라, 제 2벤처 붐은 민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민간 중심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민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술창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시작

– 실제로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액은 제 1벤처 붐 시기 이후 정체되었다가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제 2벤처 붐 시기에는 4.3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98-'20년 창업생태계 주요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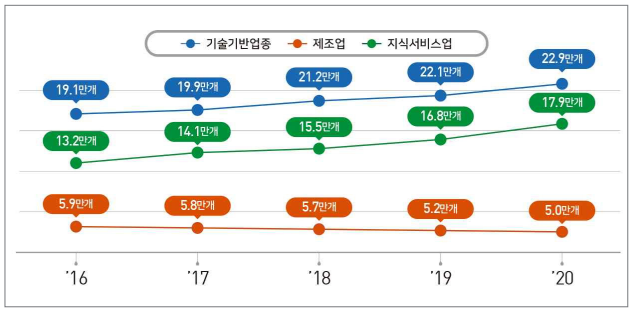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04) 한국 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 결과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창업 기업들이 지속해서 시장에 진입하여 양적 · 질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임.

– 국내 정보통신 등 기술기반 업종은 2016년 약 19.1만 개에서 2020년 약 22.9만 개로 최근 4년간 20.1%가 증가하였지만, 제조업 창업은 2016년 약 5.9만 개에서 2020년 약 5만 개로 성장이 둔화

〈그림 4〉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04) 한국 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 질적으로도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지속해서 배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증가하는 등 혁신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창업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

*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청년 리더에 한국인이 매년 꾸준히 선정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5개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청년 기업으로 선정

〈표 1〉 연도별 한국인 선정 현황

(단위: 명)

구분	'16	'17	'18	'19	'20	'21
한국 선정사 전체	15	32	24	28	25	23
스타트업	5	19	11	16	21	15
중기부 사업 참여	2	10	3	9	19	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04) 한국 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 2021년 미국의 CES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스타트업은 22개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88%를 차지

〈표 2〉 CES 혁신상 수상 현황

(단위: 명)

구분	'19	'20	'21
중소기업	8	33	25
스타트업(비중①)	5(62.5)	24(75.0)	22(88.0)
중기부 창업지원 참여(비중②)	5(62.5)	19(57.6)	18(72.0)

* ①: 중소기업 대비 스타트업 비중
②: 스타트업 중 중기부 창업지원 수혜기업 비중

* 혁신상 수상기업 리스트는 최근 3개년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19년 이전 데이터의 확인이 어려우나, 팁스 참여기업중 럭스로보('18년)등 '19년 이전 수상사례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04) 한국 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 이와 같은 혁신형 창업 기업의 증가는 경제적으로 높은 파급효과[1]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벤처창업 기업이 지속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

–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고용률은 2019년 대비 7.9% 증가

– 특히 여성 및 청년들의 고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간 전체 고용의 26.0%가 만 29세 미만의 청년이었으며, 31.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IT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 의료에서 11%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고기술 기업들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중소벤처기업부(2021. 02. 16), 20202년 벤처기업 고용

□ 정부는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제 2 벤처붐을 조성하는 등 국내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2)]

○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2024년까지 30만개의 기술창업 달성을 목표로 제시

○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고,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다각적 지원을 통한 우수한 인재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되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

○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에 필요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상장기업들의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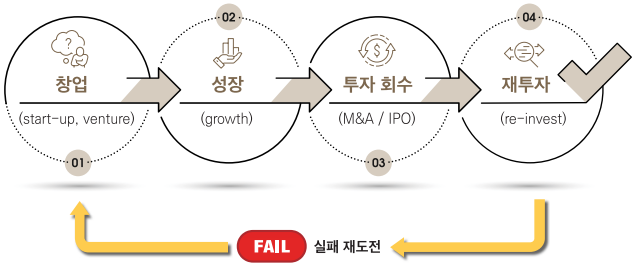
□ 하지만, 세계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기업의 역할과 지원 확대가 필요

○ 생태계는 특정 환경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환경 내 상호관계에 있는 생물과 무기적 환경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참여 주체, 환경 등 간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 주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개념을 의미[3)]

○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는 지식의 창출기능과 중개 및 촉진기능, 지식의 활용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이루어지는 혁신의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의 생태계를 의미

– 결국, 혁신 기술창업생태계는 혁신 기업, 대학 등 창업 지원 기관과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 지속해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 출현 ▸확장 ▸성숙 ▸자기재생 또는 쇠퇴 등의 단계에서 연계되는 주변 환경적 조건인 투자기관, 지원기관, 지원 프로그램,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이 혁신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성[4)]

〈그림 5〉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그림 6〉 혁신 기술창업생태계 구성

2) 관계부처 합동(2019. 3),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3) 창업진흥원(2021), 스타트업 경기전망지수 개발
4) 문미성(2019),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대안적인 공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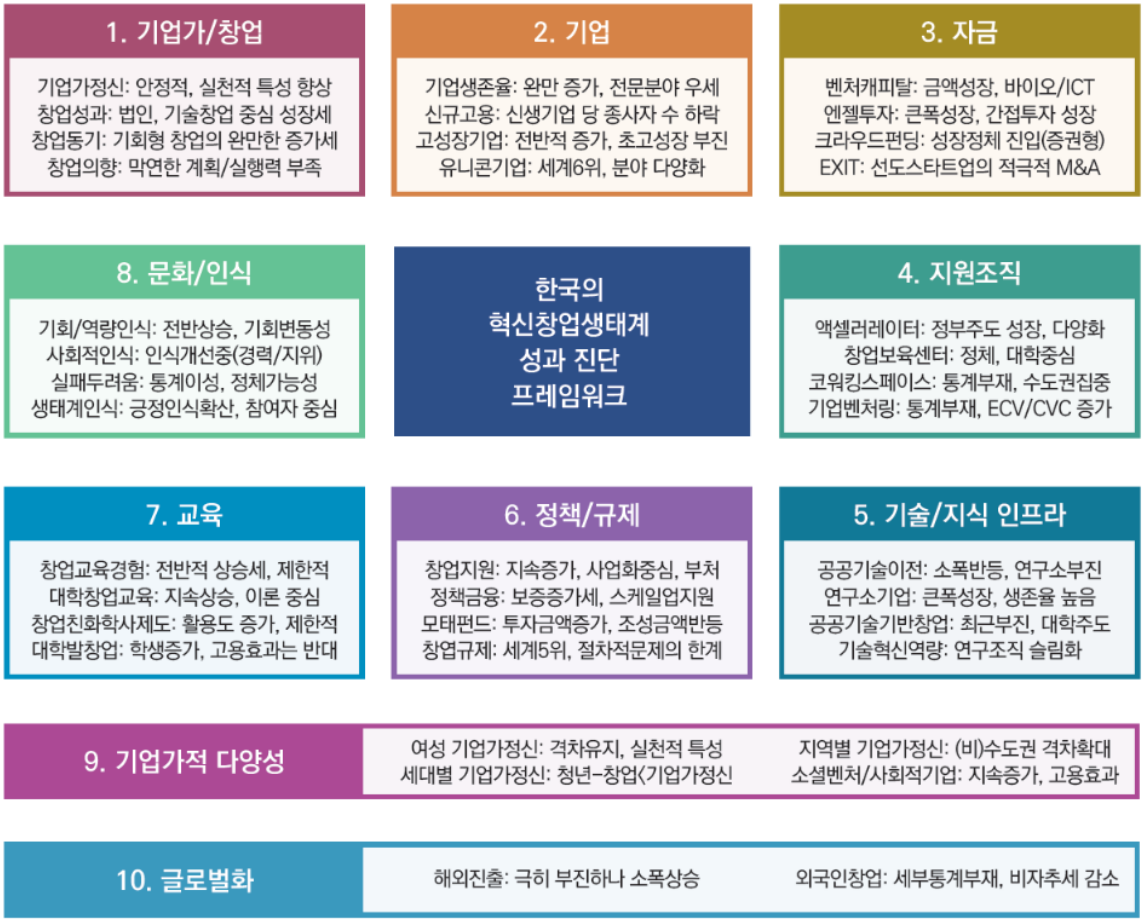
○ 특히, 기술창업과 같이 혁신 중심의 고성장을 추구하는 창업의 경우 높은 기업가정신과 시장검증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추구

– 해당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식과 경험, 노하우 전달의 소프트웨어적 접근과 창업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

– 즉, 혁신 기업을 위해 필요한 조건별 생태계가 적정하게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는 연구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정책, 자금, 시장, 인재, 지원(인프라), 기술, 문화와 같은 특성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설명하고자 하며, 국내의 혁신창업생태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시보드[5]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그림 7〉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한국의 혁신 창업생태계 대시보드

○ 즉,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 창업생태계의 주요 영향요인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야 함은 물론 국내 벤처창업생태계가 직면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수도권 중심의 창업 체계로 인한 지역창업생태계의 불균형
- 둘째, 창업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성 주체들의 협업 문화와 협업체계가 부족
- 셋째, 연구의 중심인 대학의 고기술창업 활성화가 저조
- 넷째, 창업 이후 스케일업을 통한 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체계와 투자 규모가 부족
- 다섯째, M&A 등 엑시트 시장 활성화가 저조
- 여섯째, 기술창업의 필수자원인 창업 인재 육성체계가 부족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고기술 창업 활성화를 저해
- 일곱째, 혁신형 제조 창업 활성화의 기본 인프라인 민간 제조 창업 플랫폼(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확산이 부족

2) 국내 창업생태계 주요 이슈

□ 수도권 중심의 창업 인프라와 자원 집중에 따라 지역 창업생태계의 불균형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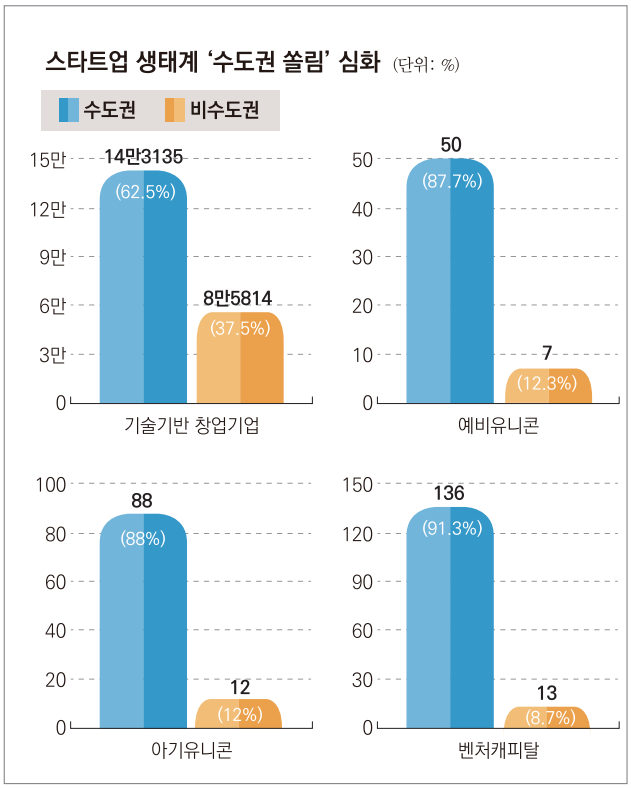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 기업은 1,484,667개로 2016년 1,190,177개보다 24% 증가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창업생태계 구성 주체의 대도시 편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 2016년~2019년 지역별 기술창업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유지

* 서울은 기술창업 기업 중 24~25%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지역도 기술창업 기업이 27~30% 수준을 유지

- 특히, 유니콘 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창업 기업 이외에 예비유니콘과 아기 유니콘의 80%가 수도권에 집중[6]

〈그림 8〉 창업생태계의 수도권 쏠림 현상



- 창업 관련 투자 및 성장을 지원하는 지원기관들도 수도권 편중이 심한데, 벤처캐피탈의 91.3%가 수도권에 집중[7]되어 있으며, 액셀러레이터 또한 수도권에 65.9%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남.

6) 머니투데이(2021. 06. 28), 미래 유니콘 80% 수도권 쏠림···"이대로면 지방 창업생태계 붕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714032438612

7) 메트로신문(2020. 10. 25.) 벤처투자 70% 이상 수도권 집중…지방 소재 밴처캐피털도 적어,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025500053

〈표 3〉 창업투자 및 액셀러레이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창업투자회사	136	91.3	13	8.7	149	100.0
LLC형 벤처캐피탈	27	90.0	3	10.0	30	100.0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164	65.9	85	34.1	249	100.0

– 모태펀드 자펀드*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펀드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8]을 살펴보면,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의 투자금액은 전체 12조 1494원의 약 70%인 8조5484억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기업 투자금액은 5대 광역시 9.3%, 그 외 지방 8.2%에 불과. 특히 세종, 울산 · 전남, 전북 · 제주, 광주, 대구 등 7개 지역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모태펀드란 정부재정으로 결성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정책 모펀드로서, 모태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민간자금을 포함한 자펀드를 결성해 유망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펀드를 지칭

– 민간 중심의 엔젤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 엔젤 투자의 경우 2011년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욱 많았지만, 2018년 기준 수도권이 81.7%로 나타나, 약 7년 사이에 수도권으로 집중된 것을 보여줌

*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엔젤투자자는 77%, 전문개인투자자 85.2%, 엔젤클럽 69.6%, 개인투자조합은 7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판단

〈표 4〉 수도권, 비수도권 간 엔젤투자액 비교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184억원(40.7%)	267억원(59.3%)	451억원(100%)

2018년(2020년 12월 기준 통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5,067억원(81.7%)	1,128억원(18.3%)	6,195억원(100%)

자료: KIET (2021.08), 엔젤투자,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표 5〉 2020년 12월 수도권, 비수도권 간 엔젤투자 주체 비교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엔젤투자자(명)	10,571 (77%)	3,157 (23%)	13,728 (100%)
전문개인투자자(명)	156 (85.2%)	27 (14.8%)	183 (100%)
엔젤클럽(개)	167 (69.6%)	73 (30.4%)	240 (100%)
개인투자조합(개)	1,112 (72.7)	418 (27.3%)	1,530 (100%)

자료: KIET (2021.08), 엔젤투자,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 액셀러레이터 또한 2021년 11월 기준 서울이 52.7%, 경기가 1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경기지역의 엑셀러레이터가 62.8%에 달하고 있음.

8) 메트로신문(2020. 10. 25.) 벤처투자 70% 이상 수도권 집중…지방 소재 밴처캐피털도 적어,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025500053

〈표 6〉 지역별 액셀러레이터 등록현황(2021.11.30. 기준)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합계
기업(개)	188	36	13	22	8	24	9	3	9	2	6	10	7	5	5	7	3	357
비율(%)	52.7	10.1	3.6	6.2	2.2	6.7	2.5	0.8	2.5	0.6	1.7	2.8	2	1.4	1.4	2	0.8	100.0
	66.4		33.6															100.0

자료: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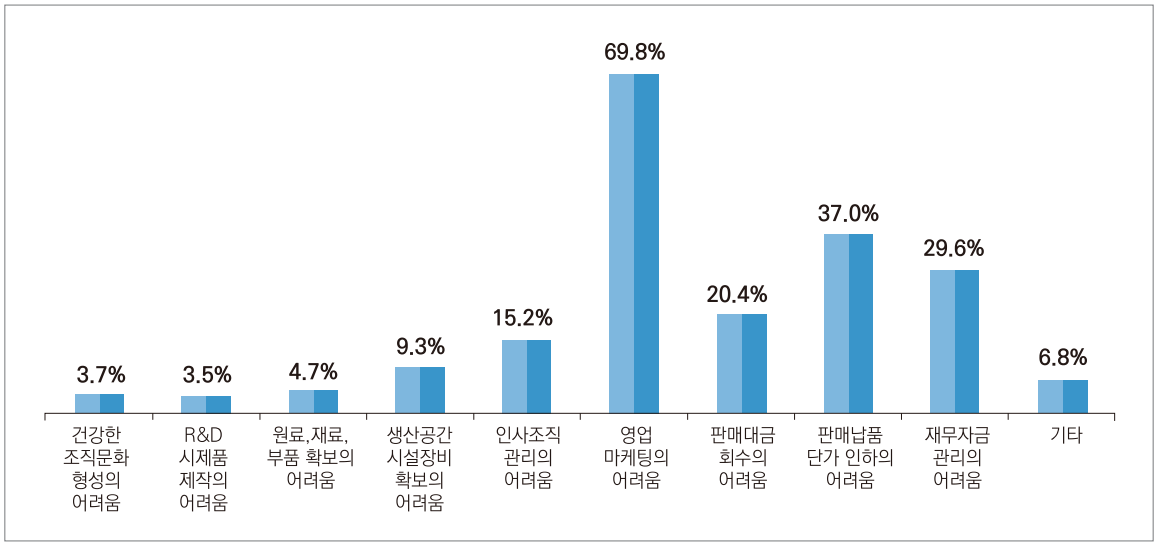
○ 국내 창업생태계(기술창업 기업, 창업투자기관(엔젤, 벤처투자자), 모태펀드, 액셀러레이터) 모두 수도권 편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게는 이해관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 스타트업 이후 창업 기업이 성장,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성장단계별로 협업할 수 있는 문화와 체계가 부족

○ 창업 기업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9]은 판매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판로 및 파트너십 역량의 부족에서 발생

– 즉, 영업 마케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판로 개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수익의 회수 등의 어려움 또한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그림 9〉 창업 후 기업의 운영 상 애로사항



9)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년 창업 기업 실태조사

○ 특히, 벤처기업으로 갈수록 해당 기업이 직면한 경영적 문제는 영업 마케팅 이외에 자금 확보, 기술혁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 성장에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즉,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 운용 · 자금관리(75.4%), 국내 판로 개척(66.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60.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10)]

○ 창업 후 기업은 보유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해야 하나, 기업의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 존재

○ 따라서 시장 진입, 기술 개발 등 성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창업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업 기업 및 벤처기업의 협력, 제휴 활동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기업 경영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국내 창업 기업들이 실시한 기술협력, 조달협력, 생산협력, 판매협력, 자본협력과 같은 협력 · 제휴 경험[11)]은 11.5%에 불과한 상황이며, 벤처기업 또한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17.7%,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등)은 9.1%,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간 협업 체계 강화와 활성화가 필요

□ 대학의 고기술 창업 활성화 저조

○ 기술창업에 핵심인 우수 기술의 이전을 위한 대학 및 공공기관 노력은 아직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이 저조한 상황

– 2019년도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율[12)]*은 35.9%로 전년도(34.3%)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학은 30.3% 수준에 불과

* 기술이전율 = (조사대상년도)기술이전 건수 / (조사대상년도)신규확보(개발)기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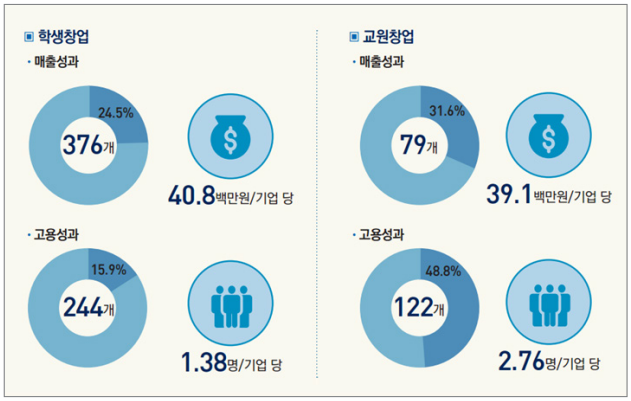
○ 대학발 창업의 경우 대학생 창업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高)기술을 보유한 대학원생, 교원의 창업은 부족한 상태

– 대학발 창업 기업은 2018년 기준 학생창업 1,534건, 교원 창업은 250건에 불과[13)]

– 즉,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원 중심의 기술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

* 실제 매출 성과와 고용성과를 비교하면, 교원 창업의 경우 각각 31.6%, 48.8%로서 학생창업의 24.5%, 15.9%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고용성과 부분에서 교원 창업이 학생창업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

〈그림 10〉 학생 및 교원창업 성과 현황



○ 즉, 교원 창업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학생창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고급 기술을 보유한 교원 및 대학원생 중심의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10)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11)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년 창업 기업 실태조사
12) 산업통상자원부(2020), 2020년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 스타트업 이후 스케일업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체계 부족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가치 10억 달러 (약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16년 2개에서 '20년 13개로 급등

〈표 7〉 연도별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

구분	'16	'17	'18	'19	'20
유니콘기업	2	3	6	10	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한국 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 하지만 글로벌 국가별 상황과 비교할 경우 미국은 2021년 상반기에 유니콘 기업 169개가 탄생하였고 중국은 26개가 양성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개에 불과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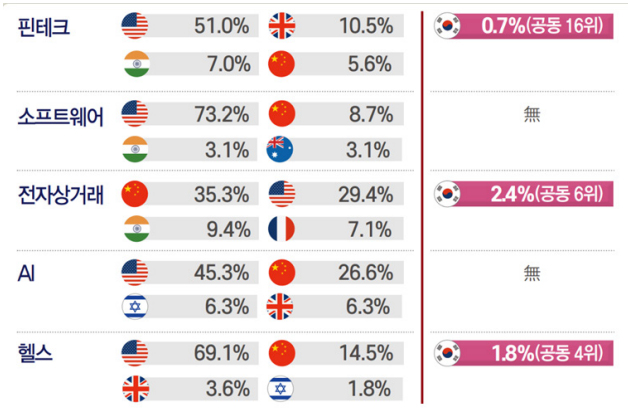
〈그림 11〉 국가별 유니콘 기업 현황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이스라엘	한국
유니콘 보유순위('21년)	1위 (388개)	2위 (157개)	3위 (36개)	4위 (31개)	5위 (18개)	10위 (11개)
'21년 1~7월 신규 유니콘 출현	169개	26개	12개	7개	12개	1개
스타트업 투자유치 글로벌 비중('20년)	45.6%	27.2%	3.9%	4.0%	1.4%	1.5%
창업도시 생태계 평가('20년)	1위	4위	26위	2위	6위	20위
스타트업 엑시트('20년)	2,959건	599건	131건	252건	78건	68건

자료: Global Insight (2021), 유니콘 기업과 창업생태계

○ 특히 핀테크,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AI, 헬스 등 주요 미래 산업의 분야별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 및 중국 중심으로 나타나, 미래 산업에 대한 유니콘 기업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

〈그림 12〉 유니콘 Top 5 산업별 국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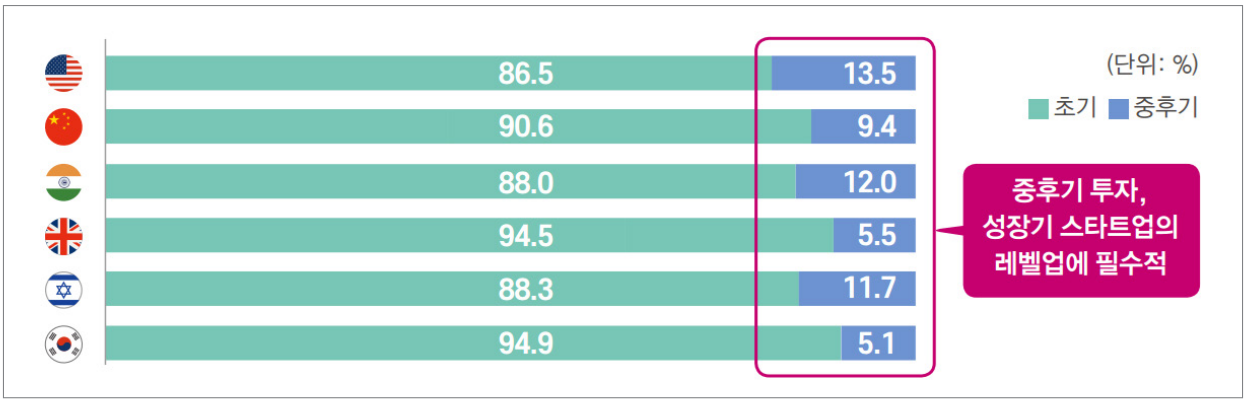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2021), 유니콘 기업과 창업생태계

○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단계보다는 창업 중후반기 단계*에서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5.1% 수준에 그침.

* 투자단계 구분: 스타트업 투자단계를 기준으로

- 초기: 시드/엔젤투자~시리즈 B (사업시작부터 시장내 사업성 검증 단계)
- 중후기: 시리즈 C 이상 (일정부분 성공궤도에 오른 후 사업확장 단계 이상)

〈그림 13〉 국가별 스타트업 단계별 투자유치현황



자료: Global Insight (2021). 유니콘 기업과 창업생태계

○ 즉,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업 기업 중·후반기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적은 수준이며, 특히 AI 등 미래 산업 유니콘 기업 또한 적은 상황

○ 성장기 스타트업의 레벨업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 외에 유니콘 기업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니콘 기업의 육성 및 엑시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최첨단 분야에 대한 육성책이나 스타트업의 투자회수시장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점 지적[14]

○ 이에 따라,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을 통한 투자회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을 통해 M&A에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등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유니콘 상위 10개 국가별 유니콘기업 스타트업 회수(exit) 비율[15]

  * 미국 (33%), 중국(32%), 영국(17%), 인도(6%), 한국(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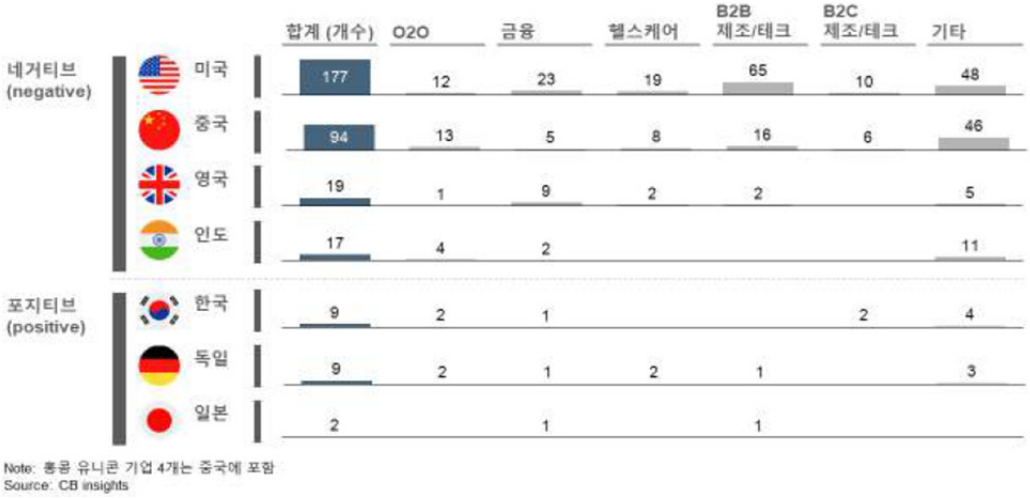
○ 또한, 혁신 시장진출을 위한 시장진입규제 환경개선도 필요

- TechCrunch(2019)에 의하면, 글로벌 누적투자액 기준 상위 100대 업체 중 한국의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 측면에서 불가능 13개, 제한적 가능 28개 해당하는 등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규제에 의해 시장진출 자체가 어려운 환경임

○ 따라서, 국내는 현재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과 같이 네거티브방식으로 시장진입규제 환경을 개선할 필요

14) 전경련 김봉만 실장
15) CB Insight: TechCrunch, 2020

〈그림 14〉 국가별 규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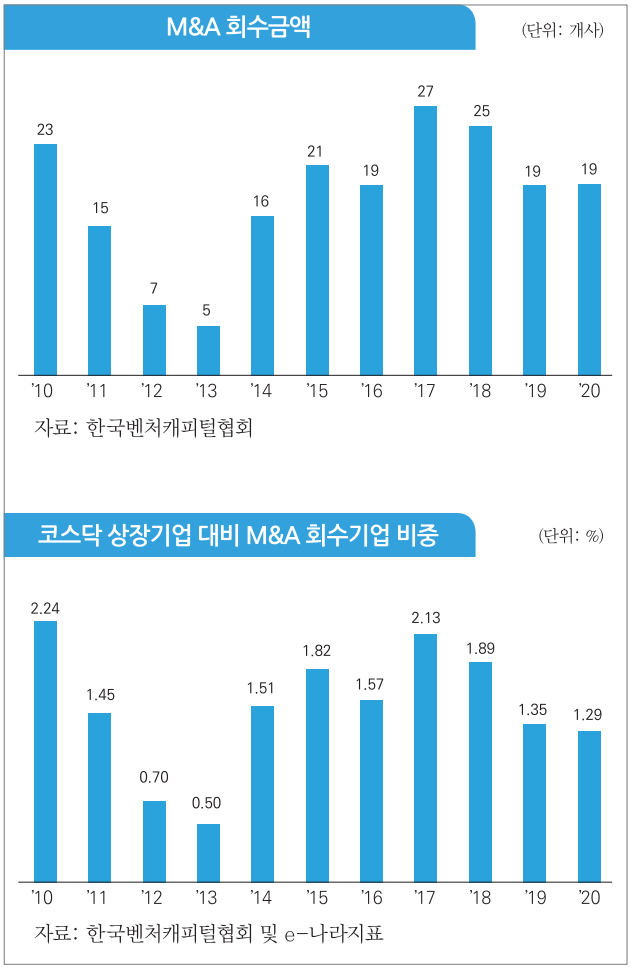
□ M&A 등 회수(exit)시장 활성화 저조

○ 국내 M&A는 2010년보다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창업 기업 회수(exit)를 위한 시장 활성화가 저조

- M&A 건수는 2020년 19개로 2010년 23개보다 17.4% 감소하였으며, 2020년 M&A 회수 기업 수 비중은 1.29%로 2010년 2.24%보다 42.4% 감소[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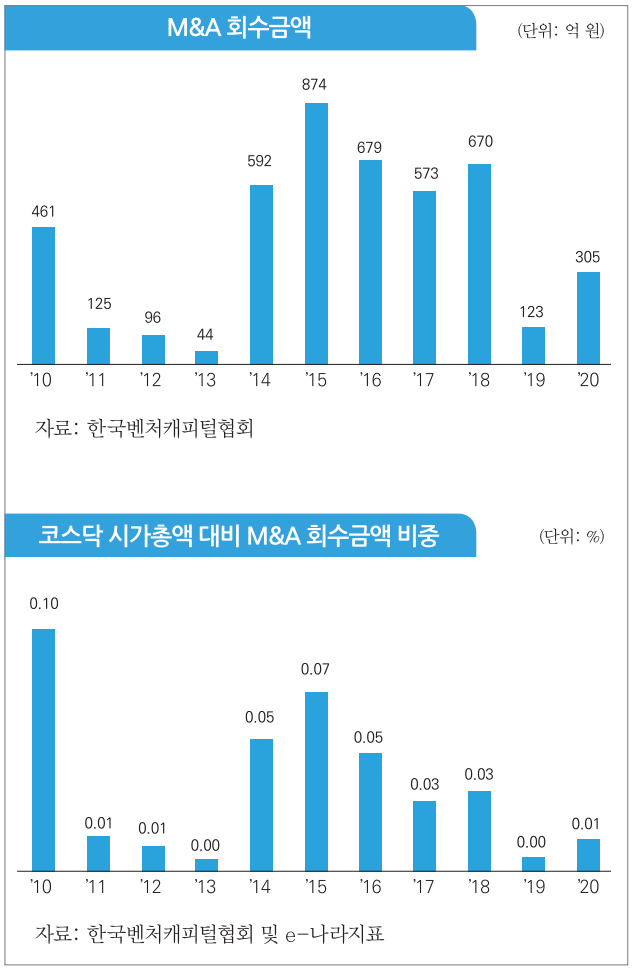
- 또한, 2020년 M&A 회수금액은 305억 원으로 2010년 461억 원보다 33.8% 감소하였으며, 2020년 M&A 회수금액 비중은 0.01%로 2010년 0.1%보다 90% 감소

〈그림 15〉 M&A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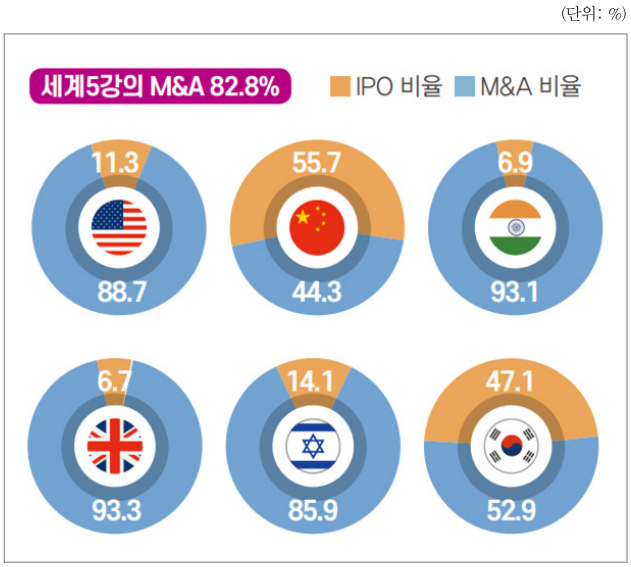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개발 연구

〈그림 16〉 M&A 회수금액 현황



〈그림 17〉 스타트업 엑시트 구성(2018-2020)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개발 연구

○ 글로벌 비교 시, 세계 5강의 창업 엑시트는 중국을 제외하고 M&A를 중심으로(82.8%)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 투자규제로 인한 M&A 미활성화(52.9%)로 인한 투자회수가 경직된 실정임

– 한국 유니콘은 카카오('18/한국증시 IPO), 우아한형제들('19/글로벌M&A(딜리버리히어로), 쿠팡('21/뉴욕증시 IPO) 총 3개 엑시트로 나타남

– 특히, 스타트업 엑시트[17]는 미국 2,959건에 비해 우리나라는 68건으로 매우 적은 수준

○ 기업 중심의 미국 등과 달리 정부 중심의 투자 정책과 대기업의 투자규제로 인하여 M&A가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주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M&A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부정적 문화 및 대기업 참여가 어려운 규제와 같은 문화 및 제도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에의 동기부여나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M&A는 기업사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며,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다툼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이 경영권을 뺏기 위한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

– 하지만,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M&A를 통해 미국 등 청년 창업 기업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내 M&A 생태계 역시 보다 건설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17) Global Insight (2021). 유니콘 기업과 창업생태계

- 둘째, 대기업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M&A 시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규제 등 제약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M&A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전경련[18]에 발표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100대 기업 M&A 실적은 M&A 건수 기준 G5기업 평균의 41%, 금액 기준 G5기업 평균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M&A가 대기업 집단으로 적용되면서, 계열사 간 지원행위 금지 등 제약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중간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

- 벤처 투자 시장은 7-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인 만큼 중간 회수(세컨더리) 단계가 활성화되어야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음.

- 이외에 회수 이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스타트업에 필수자원인 창업 인재 육성체계가 부족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고기술 창업 활성화를 저해

○ 코로나19는 빠르게 우리 사회를 비대면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비대면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AI 등 관련 개발 전문가 등의 인력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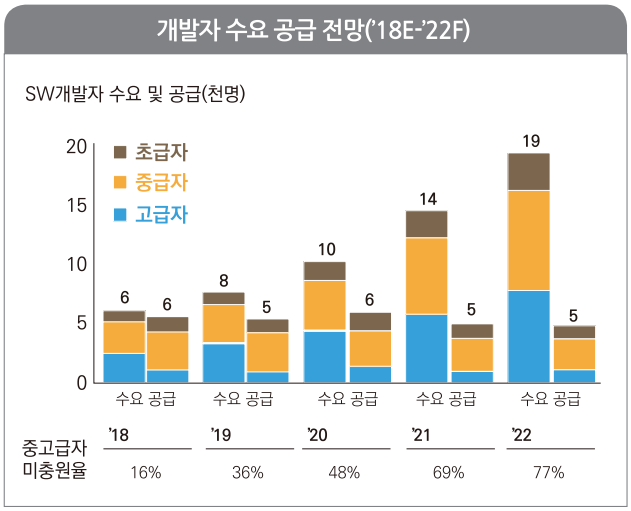
-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IT 공룡기업과 삼성전자, SK 등과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채용 경쟁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고 기술창업 기업에게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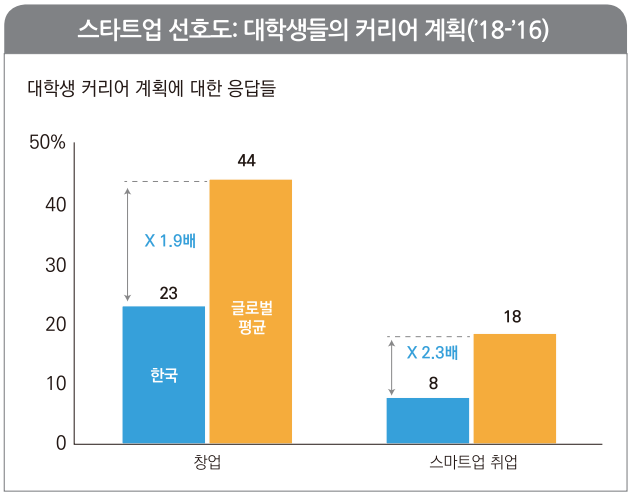
- 실제 IT 개발자 중심의 연봉 인상 트렌드는 단순히 관련 분야의 프리랜서 구인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프리랜서의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 시 1억 원 이상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기 대비 20배나 증가[19]

○ 반면 청년들의 창업 선호도와 소규모 사업 취업선호도[20]는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및 전문직과 같은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

- 우리나라 청년의 창업 선호도는 23%로 글로벌 평균(44%)보다 낮으며, 중소기업 취업선호도는 8%로 글로벌 평균(18%)보다 낮은 상황

〈그림 18〉 개발자 수요 및 스타트업 선호도





주: 중고급자는 대출, 석박사 해당 인력: 커리어 계획은 GUESSS의 2018년 대학생 3,000명 대상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설문조사, 스타트업 취업 선호도는 2016년 5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 취업 선호

자료: GEM(Global Entreprengurship Monito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18) 장문기 (2022. 02. 10), 한국 기업 M&A 규모, G5 국가 절반에도 못미쳐... 규제 완화해야, 아주경제
19) 위시켓(2021), 2021년 IT SW 프리랜서 구인/구직 트렌드
20) 뉴시스 (2019.08), 스타트업 핵심 인력 개발자 부족 심각.. 기피 문화도 걸림돌

○ IT 산업의 인력 불균형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교육 과정보다 산업 기술의 변화가 더 빠르게 전개되고 배워야 하는 지식과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

○ 분야별 IT 산업의 직무는 전문화된 IT 기술을 요구하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시장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다만, 최근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IT 기술 전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는 추세

- KT는 에이블스쿨 교육을 통해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에이블스쿨은 AI 인재양성 경험과 노하우를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하여,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과 함께 기업 실무형 AI/DX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포스코는 AI/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업에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시대 핵심기술인 AI/Big Data 관련 전문 교육과 청년들의 차별화된 취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

- SK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Scholar를 통해 대학생이 사회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직접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비영리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을 조직화하도록 돕는 등의 활동을 수행

○ 하지만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IT 전문 인력 수요 확보 노력은 현재 필요한 IT 전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고 기술창업 기업까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우리나라의 IT분야 인력 부족 규모는 약 1만 4천 명 정도로 직전년도 대비 약 53.5%가 증가[21] 한 상황이며, 기업 수요 대비 '우수한' 개발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은 자연스럽게 대기업 및 빅테크 기업 중심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음.

- 스타트업의 IT 인력 부족 현상은 민간 기업과 같이 생태계 내 어느 한 분야의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 따라서 혁신형 스타트업이 지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분야별 IT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

□ 민간 제조창업 플랫폼(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확산이 부족

○ 누구나 창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

- 2020년 현재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해 전국에 192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22]

  * 일반랩은 일반인 대상 메이커 입문 교육 및 창작 활동 체험을 지원하고, 전문랩은 전문 창작 활동, 시제품 제작과 창업 지원을 인프라와 연계해 사업화 지원하는 공간을 의미

○ 메이커 스페이스가 기술 및 제조 창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혁신적 시제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민간 협업 전문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2020년 고려대학교와 3D 설계 및 시뮬레이션 분야 전문기업인 다쏘시스템은 '3D 제조 버추얼랩'[23]을 통해 시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단계를 제공

21) 김형석 (2022. 02. 17), IT 인력 불균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비즈
22·23) 기계신문 (2021.07), 제조창업의 요람, 메타버스 기반 '3D 제조 버추얼랩' 국내 최초 도입

〈그림 19〉 민간협업 전문랩 활동

○ 일본의 경우, Tokyo Fabbers라는 메이커 네트워크 멤버들이 공적 지원 없이 기업의 투자 및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중

– 임대한 폐교를 메이커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문화단체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IID(Ikejiri Institute Of Design)*', 메이커 스페이스와 카페를 결합한 '팹카페(Fab Cafe)**', 코워킹 스페이스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팹랩(Fab lab)***', 그리고 상당히 넓은 공간에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메이커베이스(Maker Base)****' 등 다양한 메이커 네트워크가 존재

* IID는 사회적 기여에 관심있는 기업과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로 이루어지며, 공공이 요구하는 사업을 대행해 임대료로 지불

** 펩카페는 민간 기업이 투자해 만든 일종의 자회사로서, 카페와 메이커를 매개로 기업과 커뮤니티를 연계한 3D 프린터 관련 이벤트와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운영

*** 팹랩은 예술가 중심의 실험 공방을 운영하되, 기업 이벤트, 워크샵, 컨설팅 등의 위탁 운영을 통해 수익

**** 메이커베이스는 패션기업의 투자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개인 회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메이커 스페이스

○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확보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별 도구와 협력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간, 재료, 도구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요소들을 적절히 구성[24]할 필요

– 공간은 오픈스페이스로서 목적별 협력과 사용이 용이한 형태를 의미하며, 재료와 도구는 목적별 제작이 가능한 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미국의 "Techshop"을 벤치마킹하여 정부 주도의 제조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나, 하드웨어 제작 지원에 한정된 형태를 띄고 있으며, 메이커 스페이스의 장비 전문성 수준의 차이와 창업가의 유형에 따라 전문랩과 일반랩으로 구분되어 있고, 목적이 제조 중심으로 다소 한정적인 상황임

– 영국의 경우 전체 메이커 스페이스의 65%는 디지털 기기 영역을 넘어 화학, 생물학, 사진, 조각, 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의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협력이 가능한 부엌, 전시장, 카페, 도서관, 협업 공간 등을 제공하는 등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인프라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25]

– 이처럼 해외 주요국은 민간 주도의 분야별 맞춤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별 협력 및 제작이 가능하도록 구축

○ 따라서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문화가 자리 잡고, 생활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하드웨어 제작 중심에서 화학, 생물학 등 분야별 맞춤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해당 공간, 재료, 도구의 지원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민간 기업이 보유한 역량(장비, 기술, 노하우 등)을 전국의 메이커 스페이스와 협업하여 창업가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메이커 스페이스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4·25) 김소영, 정유진, 황연수(2019),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실태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 연구, 39, 32-40

Ⅱ 국내 창업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 민간 기업의 CVC 투자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 고 기술창업의 경우, 창업 후 기업은 성장단계별(초기, 도약, 성장)로 적절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벤처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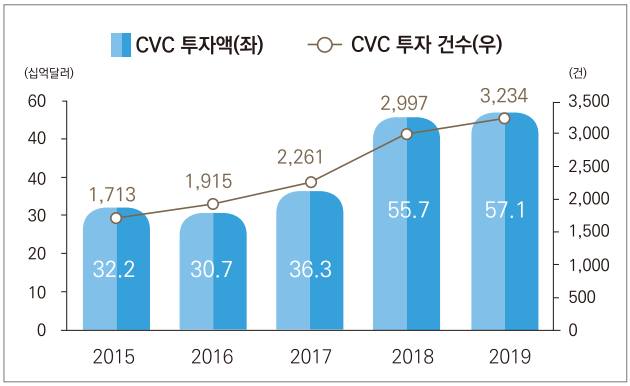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회수시장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기다리지 못하는 장외매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M&A는 거의 없는 상황

○ 미국 등 기술창업의 성장이 뚜렷한 국가들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활발

* CVC: 비금융기업 설립 벤처투자 전문회사로서, 재무투자를 넘어선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투자 진행하는 투자 전문회사를 지칭

○ 미국은 CVC 운영의 법적 규제가 없어 구글, 유니레버 등이 CVC를 통해 세계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CVC 투자는 증가 추세임

〈그림 20〉 연도별 글로벌 CVC 투자 현황



자료: CB Insight,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구글은 4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에 투자하여, 벤처기업 25개를 주식 시장에 공개(IPO)했고, 약 125개의 기업의 M&A가 성공함[26]

– 글로벌 CVC 투자의 경우 2019년 기준 3,234건, 약 571억 달러에 달하며, 인텔 캐피털(Intel Capital), 구글벤처스(GV), 세일즈포스 벤처스(Salesforce Ventures) 등 미국 기업 중심으로 투자 시장이 운용되는 실정

– CVC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

–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받고,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의 기회를 확보

○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야 부분적으로 CVC 활성화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이며, 2020년 말 기준 64개의 대기업 집단 중 비금융권에서 롯데, 코오롱, CJ 등 10개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형태로 보유

– 국내 대기업들의 CVC 투자는 2021년 1조 원을 넘었으며(2020년 대비 25.9% 성장),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CVC는 2020년 1곳에서 2021년 3곳으로 증가함

– 하지만 아직 글로벌 CVC 투자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CVC 투자는 시작 단계

○ 민간 기업의 CVC 투자 활성화는 반도체, 정보통신, 인터넷, 바이오 등 미래 신기술 사업 분야 투자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민간 기업의 CVC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

26) 매거진 한경 (2021. 08), 우버, 블루보틀 키운 건 구글 CVC.. 4대 그룹이 스타트업에 꽂힌 이유

- 특히, 최근 국내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진입한 스타트업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벤처 붐 관련 기업 종사자 또한 1년 사이에 10% 이상 증가할 정도[27]로 제2의 벤처붐에 대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민간 주도의 CVC 투자 등 스타트업 투자 활동이 확산할 경우 국내 벤처창업생태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VC 허용에도 불구하고 출자제한 규정[28] 등의 이슈는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메가펀드와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VC를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지식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대두

- 첫째, CVC 설립 시 100% 완전자회사, 200% 이하 부채비율, 40% 이하 외부자금 출자 제한 등의 규정은 글로벌 펀드와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임.

- 특히 바이오 등 몇몇 혁신 기술 분야는 대규모의 펀드 확보를 요구하나 출자제한 등의 이슈는 글로벌 경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둘째, CVC 총자산의 20% 범위에서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해외 유망 스타트업 투자에 제한이 있음.

- 셋째,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소속 기업진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 금지 등의 제약에 따라 투자자금조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계

○ 따라서 국내 CVC 외 해외 VC 유입이 활성화되도록 출자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M&A는 기업의 혁신 확보 전략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기술이나 인력을 보완하는 등 기업들의 상호 전략적 판단에서 실행되고 있음.

- 특히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강점과 약점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점에서 M&A가 중요한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접근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1999년부터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하여 미국 AI 의료로봇 스타트업 '필로헬스', 미국 디스플레이 업체 '나노포토니카', 이스라엘 반도체 스타트업 '윌롯', 동남아 인사관리(HR) 스타트업 '스윙비' 등을 인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지분투자에서 M&A로 옮겨가는 방식[29]을 띄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국내 M&A 시장은 글로벌과 비교 시 매우 경직된 상황으로,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국가인 미국(88.7%), 영국(93.3%) 등은 M&A를 통해 투자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29%에 불과

○ 이는 대기업들의 M&A 투자에 대한 소극적 마인드 외에 M&A에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기인

- '기업 사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다툼, 대기업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M&A 시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규제 등 제약 요인, 중간 회수(세컨더리) 단계 활성화를 통한 M&A 투자 확대 조치 등의 제도 등은 M&A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임.

○ 정부 차원에서는 M&A에 긍정적인 기업문화 조성, M&A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M&A 투자 시 매칭펀드 지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 M&A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시급히 조성할 필요

27) 명순영 (2022. 01. 04), 기업들, 스타트업 투자 팔 걷었다... 대기업도, 기술 유니콘도 VC 설립 붐, 매일경제
28) 고석용 (2021, 11.12), 대기업 CVC 허용했지만... 한국형 '손정의 비전펀드 못만들어'머니투데이
29) 최태우 (2021. 12. 20), 2020년대 인수합병(M&A) 트렌드, "중심에는 스타트업이 있다"ITBizNews

○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 기업들은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평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M&A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적인 M&A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과의 기술적 협업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필요

○ 스타트업은 자원과 기술의 한계에 따라 상용화 제품 개발 시 대기업의 기술개발 노하우 또는 기술협력이 필요

– 대기업은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통해 신시장,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와 거대 자본을 통해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음.

○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전략적 동맹을 통한 성공 사례가 대두

–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기업의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내부에 강력한 R&D 조직을 보유하던 시대에서 외부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기업연구소의 역할도 전체 혁신 에코시스템의 허브 및 코디네이터 역할로 재정립되는 추세

– KT와 야놀자 자회사인 야놀자클라우드는 상호 필요성에 의해 기술 협업을 시작하였고, KT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호텔 솔루션 구축에 공들였으며 야놀자클라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호텔 시장을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 글로벌 기업 쉘은 화석연료 중심의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였으며, 커피 찌꺼기에서 바이오 디젤 추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바이오빈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한 기회를 창출

– 네이버의 기업형 엑셀러레이터[30]는 재무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에 주력하여 기업 경영, 사업 개발에 참여하여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라이, 동영상 기술 스타트업 에스프레소미디어, 대화 기반 치매 선별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세븐포인트 원 등에 투자하고 기술적 협력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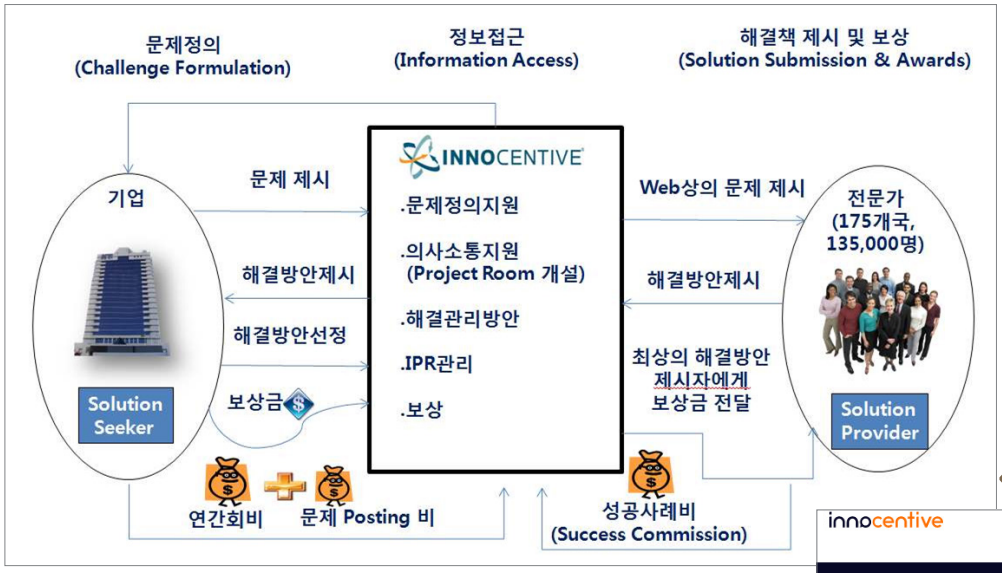
○ 또한, 이노센티브(InnoCentive)* 관점에서 대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집단 지성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며, 외부의 협력이 빠르게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이노센티브: 2001년 세계적인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설립한 이비즈니스 자회사로 세계 각 기업체들이 의뢰하는 난해한 연구개발과제의 해결을 위해 상금방식으로 전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포럼

*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바스프(BASF)나 다우케미컬(Dow Chemical),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 피앤지(Procter & Gamble) 등의 거대 국제 기업들이 현재 이노센티브 웹 사이트를 통해 어려운 R&D 문제를 익명으로 게시하고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우수한 과학자 및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음. 이노센티브의 해결과제 요건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출한 과학자에게는 최고 미화 1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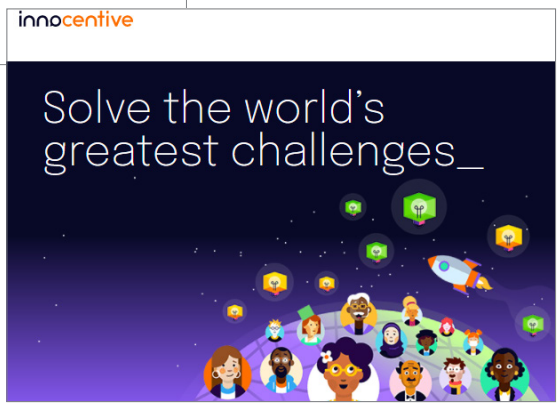
30) ZDNet 코리아(2021. 11), 네이버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준은 '기술 협력'

〈그림 21〉 이노센티브 개념도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3), 중소기업 지식클리닉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그림 22〉 이노센티브 홈페이지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과 유사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31]*을 통해 대기업의 R&D 기술개발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음.

* 대기업 등 민간에서 제시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사업화자금(최대 1억), 기술개발(최대 3억) 및 정책자금(최대 20억 또는 100억원), 수요기업(대기업)과의 협업기회를 제공

*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는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소재 관련 과제, 산업재해 예방 과제 등이 제시되어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신세계 푸드가 제시한 '친환경, 생분해 밀키트 포장재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하여 목재에서 추출한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포장재 기술을 제안한 기업이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이노센티브 플랫폼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매년 이벤트형식으로 대기업 또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과제 제출을 받고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신청을 받아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과제 매칭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 수준

○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스타 해결사 플래폼' 사업에 대기업 또는 민간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화된 '대스타-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31)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 11), 대기업의 고민 해결사, 혁신스타트업 35개사 최종 선정

○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사가 이비지니스 사업차원에서 이노센티브를 추진했듯, '대스타-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시 민간 기업이 사업차원에서 추진하고 정부가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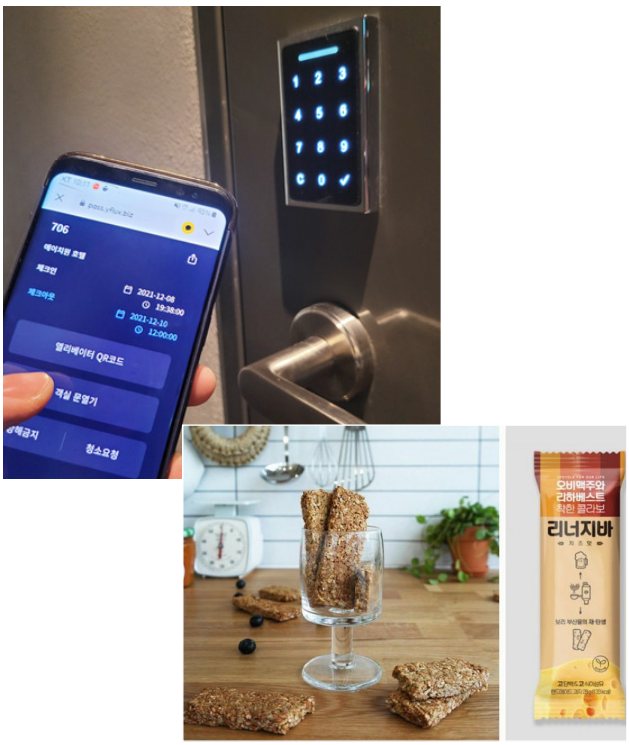
□ 스타트업과 민간 기업의 판로 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벤처기업들의 대학(산학협력)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희망분야[32]는 기술개발 분야,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 희망분야는 기술개발 및 마케팅 분야, 대기업과는 마케팅/판로/유통 분야로 나타남.

○ 최근 대기업과의 기술 및 판로 등의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창업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대기업은 혁신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례[33]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 KT와 야놀자 클라우드는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KT의 사물인터넷 기술+ 야놀자 클라우드의 객실관리시스템 연계)을 통해 혁신 기술을 개발
- 홈카페 스타트업 메디프레소는 식품기업 빙그레와 공동 기술개발 관련 협업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관련 특허만 10건인 메디프레소의 기술력과 빙그레의 제품화 역량, 유통 역량이 연계된 사례임.
-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 기업 '라피끄'는 맥주 부산물과 라피끄의 원료 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오비맥주와의 협력을 통해 맥주 부산물을 원활하게 확보하였으며, '리하베스트'는 해당 찌꺼기를 에너지바 등 영양간식으로 개발. 오비맥주는 부산물 폐기에 소요된 비용을 절감

<그림 23> 민간 기업-스타트업 연계 사례 (좌: 야놀자클라우드, 우: 리하베스트)



○ 하지만 아직 많은 기술창업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혁신 기술 확보, 판로 확보, 조달 등 다각적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국에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 중이며,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대기업이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

-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는 취지는 대기업의 기술, 자본,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혁신형 벤처창업 기업 육성에 기여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임.

32)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년 창업 기업 실태조사
33) 매일경제(2022. 01), 스타트업-대기업, 손잡으니 함께 잘나가네. https://www.mk.co.kr

〈그림 24〉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하지만 초창기 열정에 비하여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파트너 기업으로서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본, 네트워크의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내 벤처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민간 주도의 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관리(56.2%), 국내판로개척(54.7%), 해외시장개척(53.3%), 기술의 사업화(5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해당 분야의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54.0%)의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어 적합한 인재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신기술분야의 개발인력, 기술사업화 인력, 판로 및 시장개척인력 확보가 매우 열악

〈표 8〉 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

구 분	신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	해외 시장 개척
5점 척도	3.4점	3.6점	3.6점	3.6점
상위응답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44.0%	51.1%	54.7%	53.3%

구 분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 관리	기술유출 디자인 및 상표도용
5점 척도	3.6점	3.7점	3.1점
상위응답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54.0%	56.2%	28.0%

자료: KIET (2021.08), 엔젤투자,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기술 개발인력, 판로 및 마케팅 전문 인력 등의 양성이 시급하나, 대학의 경우 '대학역량평가' 기반 대학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 한계

○ 인력수급 측면에서 국내의 향후 5년간 SW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35.3만명인 반면, 정규과정을 통한 배출인력은 11만 명, 정부 SW 인재양성 사업 21.4만 명으로 공급 규모가 약 32.4만 명에 그쳐 수급의 차이는 5년간 약 2.9만 명+α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SW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그림 25〉 SW인력 연도별 수요 및 공급 현황

자료: 민·관 협력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1. 06

○ 정부가 추진하는 민 · 관 협력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2021.06)에 따르면, 대표적인 민간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주도로 대학과 협력하는 고급 · 전문인재 양성 확산지원

* (네트워크형 캠퍼스 SW 아카데미) 대학은 정규과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기초 SW 교육 실시, 이후 기업은 전문 교육(심화과정)을 연계하고, 성적 우수자 등을 채용

* (캠퍼스 SW 아카데미) 대학 내 교육장, 기숙사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수요에 맞게 교육 과정을 운영, 정부는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 우수 인재 양성정책을 기업주도형으로 확대 · 개편

* K-Digital Training,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기존 정책의 확대 및 기업주도형으로 지속

〈표 9〉 정부의 인재양성사업 현황

사업명	확대 내용	추가 양성
K-Digital Training	○ 중소벤처/디지털선도기업/지역산업계 주도형 인재양성 강화	9,000명
기업 재직자 자체훈련	○ 프로젝트 기반 S-OJT•채용예정자 훈련 지원 지속	15,000명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 타산업 재직자 및 ICT분야 경력단절자 재교육 통한 역량강화	9,060명
SW 마에스트로	○ SW전공자 출신 교육생이 최고수준 멘토와 집중교육하는 과정 확대	400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한 비정규 혁신 SW교육기관 교육생 확대	550명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 기존 6개월(중급) ▶ 8개월(현장중심 중•고급)과정으로 개편	2,900명
이노베이션 스퀘어	○ 광주 AI사관학교의 몰입형 집중과정을 타 지역으로 확산	3,500명
지역산업 연계 AI고급인재 양성	○ 지역산업 재직자의 석•박사 취득을 지원하는 과정 확대(7개 ▸ 15개)	1,200명

자료: 민·관 협력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1. 06

○ 민간 기업 차원에서 정부의 SW 인재양성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선진화에 기여할 필요

○ 한편,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는 별도로 최근 국내외에서 민간 기업 주도의 개발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 중

- Google Developers Certificate Programs, MS Professional Programs 등이 대표

- 국내의 경우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테크코스, 삼성청년 SW 아카데미, 프랑스의 에콜42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개설한 에콜42 등이 있음.

- KT의 에이블스쿨 교육, 포스코의 AI/빅데이터 아카데미, SK의 SUNNY 프로그램 등은 대표적인 전문분야별 창업 및 전문가 양성 교육에 해당

- SK하이닉스는 고려대와 협업을 통해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여, 반도체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

○ 이처럼 민 · 관 협력 사업 또는 민간 기업 차원의 SW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SW 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생태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

□ 대학발 고기술 창업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 대학에는 많은 첨단 기술, 특허 등이 있지만 대학 내 교원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구논문 중심의 교원인사평가제도, 외부 민간 기업과의 협업활동 저조 등에 의해 대학발 고기술 창업이 창업 강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교원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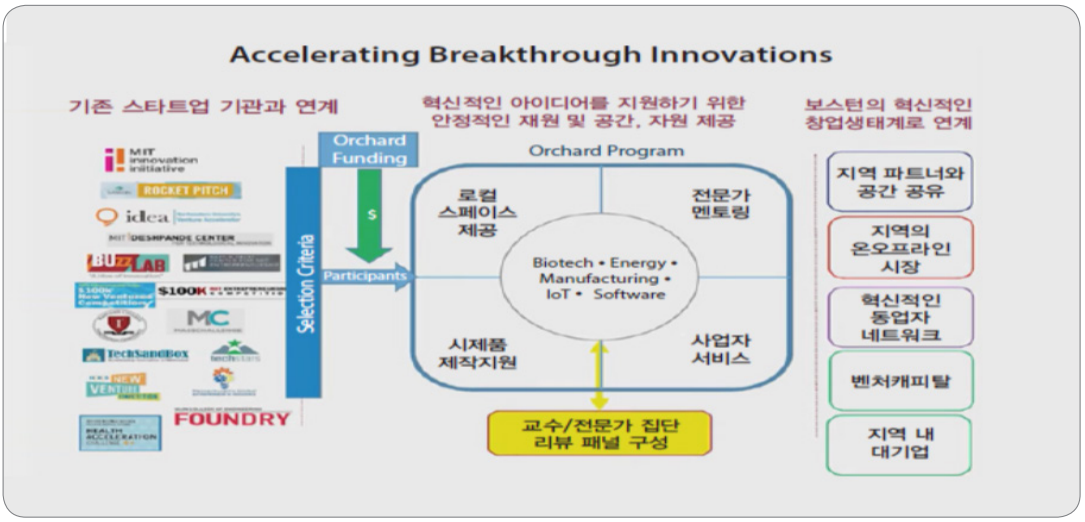
○ 과기부도 Lab to Market 사업의 일환으로 실험실 창업 지원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고기술 창업 활동을 지원

○ 정부는 물론 대학 자체적으로도 대학발 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그러나 대학발 고기술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활동 외에 민간 기업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

- 미국 MIT 대학의 경우 'The Engine Projecto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 고기술 창업 기업이 보스톤 창업생태계로 연계하여 성장하고자 할 때, 지역 내 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은 물론 해당 분야의 많은 기관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그림 26〉 MIT의 "The Engine Projector" 스타트업 육성전략



자료: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형 제조창업 육성방안, 국토정책 브리핑, 2018.08

○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민간 기업들이 대학 내 대학원생들의 실험실창업 아이템 또는 교원창업 아이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술사업화, 투자, 기술지원, 판로 지원 등을 통해 대학발 고기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이를 통해 민간 기업 역시 혁신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관 협력형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의 참여 확대

○ 제조 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기부 주도하에 2013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보급사업을 추진

– 2020년 현재 제조 창업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하여 전국에 192개소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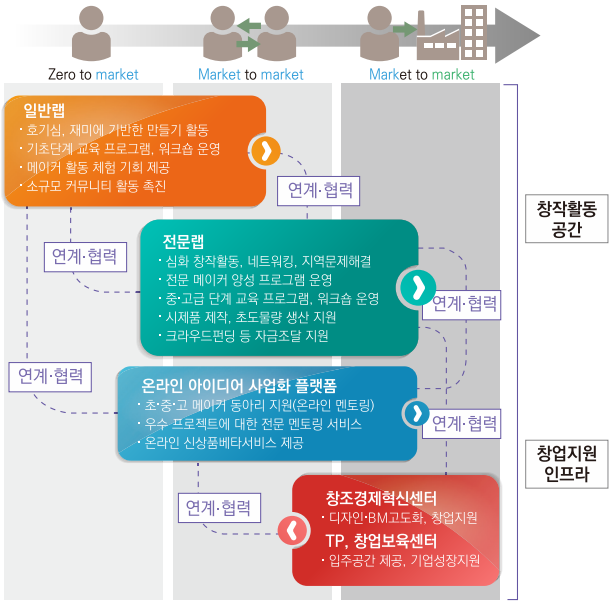
– 일반랩은 일반인 대상 메이커 입문 교육 및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고, 전문랩은 전문 창작 활동, 시제품 제작과 창업지원을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에 중점

○ 최근 민간 기업과 관 또는 대학이 협업하여 민관협력형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을 운영하는 형태가 새롭게 나타남.

– 기존 랩들이 대학과 민간업체에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반면, 여기에서는 두 주체가 협력하여 전문랩을 운영

○ 기존 메이커 스페이스가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특정 기술과 연관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기술개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기인

〈그림 27〉 메이커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단계



메이커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체계

○ 이에 따라 특정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기존의 전문랩에 그들의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가들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림 28〉 민관협력형 메이커 스페이스 버추얼랩 개념도

34) 기계신문 (2021.07), 제조창업의 요람, 메타버스 기반 '3D 제조 버추얼랩' 국내 최초 도입

– 민관협력형 전문랩인 '3D 제조 버추얼랩'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사례로 3D 설계와 시뮬레이션 분야 세계 1위 다쏘시스템과 고려대 컨소시엄이 협력함.

– 해당 랩은 시제품을 구현하는 데까지 생기는 오류는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료는 더 아끼는 시뮬레이션 단계를 제공

– 랩에서는 CPS 기반의 정밀 설계,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가상실험 · 분석 ·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주기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을 갖춘 3D 센터와 가상현실에서 제품 검증이 가능한 VR 기반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 많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지만 메이커 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첨단 하드웨어 외에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인 특정 분야의 기술, 노하우가 함께 진행될 필요

○ 따라서 특정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문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업가들의 실제적인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지역창업생태계의 균형 발전에 역할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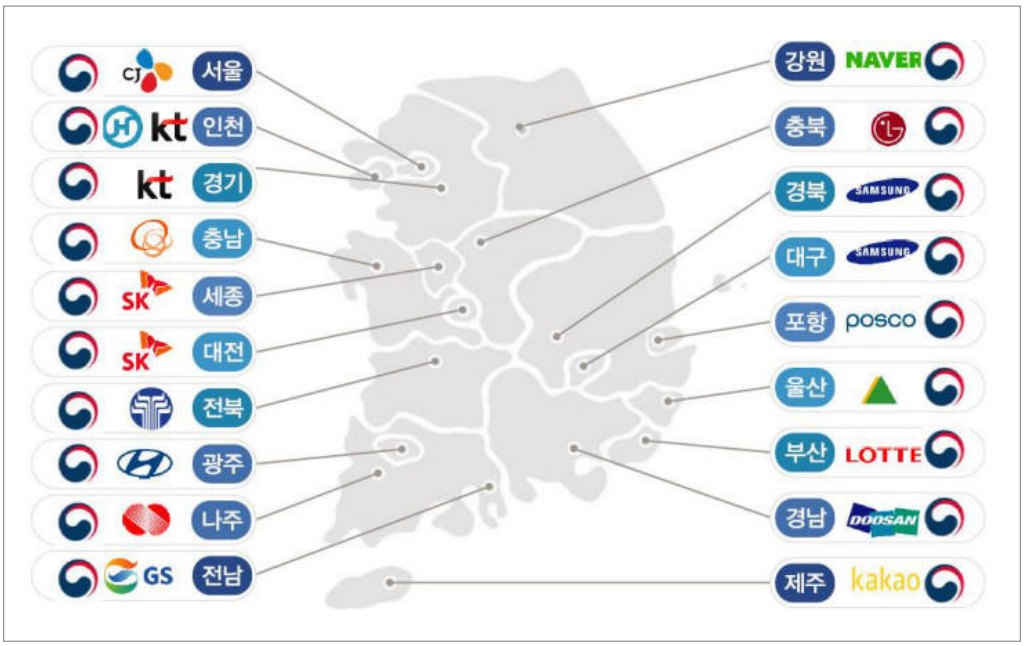
○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의 연결을 기조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1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창업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 기관 ·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 중

– 특히 공공 부분에서 지역창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파트너 기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권역별 창업중심대학(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를 선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 및 초기, 도약 단계의 창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시설, 장비, 공간, 사람 등 창업 및 혁신과 관련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역 (예비) 창업가에게 제공

〈그림 29〉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 파트너 기업 현황



○ 이와 같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지역창업생태계의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창업 자원 및 역량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중견 · 중소기업들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활동에 보다 더 활발히 참여할 필요

○ 이를 통해 창업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역창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창업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판로 확보, 기술개발임을 감안할 때, 기존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제공한다면 창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정부 역시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민간 기업에게 투자 또는 기술지원 시 세제 혜택, 판로 지원 시 일정 부분 예산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

Ⅲ 맺음말

□ 국내 창업생태계는 정부 주도의 많은 지원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개선하여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필요

○ 2020년 제2차 벤처붐이 도래하는 등 창업생태계 전반이 비약적으로 발전

○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부족, M&A 등 엑시트 시장의 저조, 대학발 고기술 창업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부족, 창업 기업 인재부족, 지역별 창업생태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경제 활성화와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개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한국의 혁신 창업생태계 대시보드

관계부처 합동(2019.3),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2021.6), 민·관 협력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김소영 · 정유진 · 황연수(2019),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실태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 연구, 39, pp.32-40

문미성(2019),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대안적인 공간전략", 월간 국토, 통권456호

산업연구원(2021), "엔젤투자,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KIET 산업경제

산업통상자원부(2020), 2020년 공공 기술이전 · 사업화 현황조사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년 창업 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2021.2), 20202년 벤처기업 고용

중소벤처기업부(2021.4) 한국 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창업진흥원(2021), 스타트업 경기전망지수 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3), 중소기업 지식클리닉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1),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CB Insight, TechCrunch, 2020

Global Insight (2021). 유니콘 기업과 창업생태계